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 긍정의 마인드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박양지님

합격수기

| .인사말

안녕하세요. 31회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박양지 입니다.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합격수기를 쓰는 상상을 하며 마음을 바로 잡았었는데 막상 이렇게 수기를 쓰려니 쑥스럽네요. 글쓰기가 쑥진 못하지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합격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빠른 90년생 (08학번)

학교: 중남대학교

전공: 독어독문, 복수전공: 무역학과

수험기간: 2012년 09월 ~ 2014년 07월

제가 관세사가 시험을 보게된 계기는 2012년 1학기때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서 관세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어차피 취업도 힘든 마당에 이왕 도전하는거 더 큰 꿈을 가져 보자라는 생각으로 2012년 09월에 휴학 후 1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II .1차시험

1차 시험은 12월까지 인터넷강의를 위주로 들었으며 1월부터 도서관에 다니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객관식 시험이므로 1차때는 깊은 이해력 보단 외독수를 높여서 문장을 눈에 익히는 공부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1. 관세법, FTA특례법

강의 : 제갈현근 2차 기본

교재 : 제갈현근 2차 관세법

1차과목과 2차과목에 관세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2차 기본반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차 강의라는 생각에 내용이 어렵게 느껴졌으나 반드시 1차를 합격 후 2차를 공부할거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결과적으로 1차 관세법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이 나왔었으며 2차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방식은 강의를 우선 들으며 틈틈이 공부를 했고 특히 1월부터는 점점 외독수를 높여서 객관식 시험의 특성에 맞추어 익숙한 문장과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문장들을 파악하는데 노력했습니다.

2. 무역영어

강의 : 김용원 무역영어 기본

교재 : 김용원 무역영어 1,2

무역영어 자격증을 공부한 적이있어서 자격증과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무역영어 자격증은 토익과 비슷했고 관세사시 시험의 무역영어는 CISG나 INCOTORMS를 영어 원문으로 공부한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한글로 원문을 이해한 후 이를 원문에 대입해서 공부했고, 관세법처럼 익숙하지 않은 문장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공부했으며 여러 문제를 풀다보면 주로 바뀌서 문제가 나오는 단어들이 있으므로 여러문제를 풀어보고 자주 바뀌서 출제되는 단어들을 암기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3. 회계

강의 : 천00 기본,심화

교재 : 천00 수필같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1차과목에서 가장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라 들었고 별도로 회계공부를 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계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역시나 회계 공부 가장 어려웠으며 기본과 심화를 들으면서 최소 하루에 2시간씩은 꼭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생소한 공부였기 때문에 일주일만 지나도 푸는법이 헛갈리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공부했던 걸 반드시 복습했고, 시험 1달 전까지는 여러문제를 푸는 것보다 같은 문제를 여러번 푸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원가는 1월쯤부터 공부를 시작했었고, 버릴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 틈틈이 공부했고 의외로 계산 문제가 아닌 것들에서 점수 받기가 쉽더라구요. 회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원가회계가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공부하셔서 과락 리스크를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4.내세법

강의 : 천00 기본

교재 : 천00 내국소비세법

내세법 같은 경우는 위의 과목과 달리 12월정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2차과목이랑 연계성이 가장 떨어지기도 하고 단순암기가 많아서 다른 과목들보다 늦게 시작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세법은 말장난처럼 조금씩 바뀌어서 내거나 공부중 간에도 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보시되 문제풀이 교재를 이용해서 관세법 무역영어처럼 틀린 문장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가볍게 여러번 교재를 읽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III. 2차 시험

2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1차 시험때가 좋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1차는

정확히는 몰라도 느낌으로 풀거나 아닌 문장을 지워가며 정답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2차 시험은 정확히 암기가 되어있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만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암기력과 이해력 모두 필요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또한 1차보다 절대적으로 공부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은 후 점점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1. 관세법

강의 : 제갈현근 심화
교재 : 제갈현근 관세법
모의고사 : 제갈현근

1차 관세법 공부를 2차 기본강의로 하기 때문에 바로 심화강의를 들었습니다. 1차시험 후 발표전까지 쉬면서 강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목차노트를 만들어서 외우려고 노력했고, 이 단어를 봤을 때 관세법 중 어디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구나 알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보면 정말 막막하고 '한문장 외우는 것도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아무래도 법조문이라서 문장과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공부하다보면 법 문체에 익숙해지고 암기도 저절로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갈현근 강사님의 말씀대로 목차노트를 만들어서 외우는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큰 틀을 잡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무엇을 쓰겠다라는 것을 알기위해선 목차노트가 필요했었습니다. 단 어느정도 공부가 된 후에는 목차노트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보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암기하려고 노력했으나 첫 모의고사 보고 지금까지 내가 뭘 공부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서론 결론 쓰는 것도 힘들고 책의 어디부분을 쓰는 것 같긴 한데 기억이 도무지 나질 않았습니다. 첫 모의고사 성적이 36점이었고 그후로도 4월까지는 40점대 간신히 넘는 등 1점이라도 올리는게 참 힘들더라고요.

관세법은 1월부터 매일 3시간씩 공부를 했고 계속 보다보니 페이지가 사진 찍듯이 암기되면서 목차나 중요한 내용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모의고사에서 다른범위의 것들과 연계되어어나오는 문제들은 문풀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답안지를 보고 책에 정리해 두고 보았습니다.

2. 품목분류 및 상품학

강의 : 조천희 기본 심화
 교재 : 조천희 품목분류 상품학
 모의고사 : 조천희

HS는 정말 무식하게 암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암기하려 노력했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내용 이해도 조금은 되더라고요. 단 28류29류는 절대 이해 할 수 없었기에 그냥 무작정 암기했습니다. 이 과목은 문제보자마자 생각이 안나는 순간 계속 기억이 안나는 경향이 있어서 앞 글자나 특정글자를 따서 암기를 했고, 포함한다는 O 포함하지 않는다 X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둔 후 사진찍듯이 암기했습니다.

역시 하루에 3시간 잡고 공부를 했고 책이 얇았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에도 보면서 틈틈이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품학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고 시험 전에 한두번 훑어보는 정도 였습니다. 단, 이번 시험에는 해설서 내용이 많이 나왔고 2단 위뿐만 아니라 4단위까지 묻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4단위까지 외우려고 노력했고 시험전에는 28류와 29류 제외하고 거의 모든 4단위를 암기했습니다.

3. 관세평가

강의 : 김00 기본 심화
 교재 : 기본(김00) 모의고사이후(정00)
 모의고사 : 김병수

1차에서 외계라면 2차에서는 관세평가가 과락률이 높았기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모의고사전에는 김00강사님의 교재와 기본 심화강의를 들으며 공부했고 협정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가 FTA관세무역연구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니 30대 혹은 20점대를 맞고 협정을 반드시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민규 강사님의 책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 책을 바꾸고 모의고사를 김병수강사님으로 들으면서 이 과목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협정을 공부해보니 협정을 공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서술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모의고사 후부터 협정을 알게 되어서 빠듯하게 공부했지만 지금 수험생분들은 미리 협정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협정공부는 일단 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조문이 왜 이 단어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과세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므로 법을 완벽히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시험에서 실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본 후에 정답지를 꼼꼼이 체크했고, 6개월정도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어떤문제에는 반드시 이문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문장을 최대한 김병수 강사님의 답안과 비슷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4.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강의 : 무역실무(최00 기본 심화) 대외외환(정00)

교재 : 기본(최00) 모의고사이후(정00, 박병호(무역실무요약집))

모의고사 : 박병호

가장 범위가 넓고 방대해서 공부하는데 힘들었던 과목이기도 하고 무역학과로써 자신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초반에는 최00강사님의 교재와 강의로 공부를 했었고 11월정도쯤에는 두권으로 보는게 힘들어서 학교도서관에서 무역실무책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00교강사님의 책이 눈에 보기 좋아서 정00강사님의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이는 제가 사진 찍듯이 암기해서 간략하게 나온 책이 암기가 편했기 때문인데, 수험생분들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로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교재로는 정00강사님의 책으로하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 책에 부족한부분이 있는 것 같아 모의고사 답지 또는 박병호강사님의 책에서 기본교재에 옮겨 적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실무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공부하는 부분 또는 문제가 계약, 결제, 보험인지와 그중에도 협약을 묻는지 일반적 내용을 묻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소위말해 썰을 풀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보자의 서술 느낌이 들지 않기 위해 여러 무역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숙지하고 사용시 주의했습니다.

대외/외환은 10월쯤부터 강의를 들었고, 실제로 공부한건 12월달쯤인데 저는 대외/외환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많이 아쉬움이 남고 실제 시험에서도 거의 서술하지 못해서 과락이 나오지 않을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대외외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서 과락 리스크를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IV 공부시간, 생활패턴 등

1. 공부시간

공부시간은 모의고사 전까지는 대략 아침 9시부터 저녁10시까지 네 과목 모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의고사 볼때부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네과목 똑같이 3시간씩 배분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의고사 전까지는 가장 어려운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하고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모든 과목을 비슷하게 배분해서 한과목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한과목이 상대적으로 못 본다면 불리하므로 모든 과목을 평균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게 좋은거 같고, 모의고사를 보면 조급한 마음이 들어 한 과목에만 치중하기 힘드므로 그전에 어려운 과목에 시간을 더 배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생활패턴

저는 2012년 09월부터 12월까지는 자취를하며 도서관을 다녔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기숙사고시반에 생활하면서 도서관을 다니다 그 이후에 고향에서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공부할 때 최대한 동선을 줄이고 공부 외에 신경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약속이 점심에 있으면 오후에 반드시 공부하고 오후에 있으면 오전에 반드시 공부를 해서 하루도 공부를 안 하는 날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암기가 많은 공부이므로 꾸준히 매일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슬럼프는 없었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험생분들은 체력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 외 강조하고 싶은 것들

공부를 하다보면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특히 1차때는 공부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공부하다가 놀러가게 되는 핑계를 자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차부터는 감정기복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예를들어 비가오니까, 날씨가 좋아서, 남자친구와 싸워서 등등 이유를 만들지 않고 무조건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은 도서관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인드컨트롤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하면 반드시 합격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냥 합격할 수 있다가 아닌 '열심히 하면' 이라는 전제조건을 걸고 열심히 하면 난 합격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가끔 내가 열심히 해도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시면 꼭 될 거라 믿습니다. 실제로 저는 다른 걸 이만큼 노력해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공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고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V. 맺음말

부족하고 두서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31기 관세사 박양지 드림